

올해 입시는 내신이 관건... 자기소개서 중요도 높아져

등교수업 후 입시 전략은

코로나에 비교과 활동 기회 적어
내신 등급으로 학부 판단 가능성 ↑
주력 전형 미리정해 집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러 차례 연기됐던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예년보다 두 달 이상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올해 고3 학생은 졸업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격 개학은 물론 등교 시기를 비롯해 입시 일정도 전체적으로 뒤로 크게 밀렸지만, 대입 일정 조정은 소폭에 그쳐 올해 고3은 뼈대잡는 대입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3 수험생은 5월 자신의 성적을 토대로 주력 전형을 미리 정하고 자기소개서 준비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교과 활동의 기회가 적어져 대학은 내신 등급으로 학생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여름방학 전 5번 시험

수험생은 13일 고3 첫 등교 이후 ▲14일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초 중간고사 ▲6월 18일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7월 22일 인천시교육청 주관



수능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뉴시스

전국연합학력평가 ▲7월 말~8월 초 기말고사 등 여름방학 전 총 5번의 시험이 예정돼 있다.

오는 14일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실질적으로 첫 전국 단위 시험이다. 졸업생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탐구 및 제2외국어, 한문 등 선택 과목 선정 토대가 되며 전국적으로 자신의 위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신의 취약단위이나 과목을 진단해 앞으로 학습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면서 "3월 모의고사가 자율적으로 실시돼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학 연기로 이처럼 중요한 시험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수시, 정시 지원 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수험생은 이미 나온

자신의 성적을 토대로 주력 전형을 미리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2학년까지 학생부 교과·비교과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올해 입시에서 어떤 전형 위주로 지원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라면 시급히 보충해야 할 학생부 요소를 파악한 후 실제 보완할 활동을 해야 한다. 이만기 소장은 "역설적으로 올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원격수업이 학생부를 풍부하게 할 소재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등을 소재로 학생부 기록할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리 포기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올해 입시 내신 비중 높아...수시 지원 준비는 서둘러야

올해 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코로나19로 여파로 교과 연계 활동(비교과 활동)의 기회가 적어져 내신 등급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내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행평가보다 지필고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내신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내신으로 대학을 갈 예정이 아니라면 중간고사보다도 수능 준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만기 소장은 "고2 때까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신 성적 추이를 확인하고 교과 연계 활동과 내신 성적 향상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담임교사와 면담 시에 출신교의 내신에 의한 목표 대학 진학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내신과 수능 중 매진해야 할 것을 공략하라"고 말했다.

수시 지원자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시 지원 준비를 위해 5월 중에는

희망 대학·학과·전형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라면 자기소개서, 추천서, 동료·자기 평가서 등 서류 준비를 미리 하자. 이때, 어떤 결과물이 원격 수업 기간 중 이뤄진 것이라면 담임교사의 판단 아래 사실 확인을 하고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를 염두에 둔 수험생이라면 기출문제, 모의문제 등을 확인하고 학습해야 한다.

◆1~2학년 활동 주목 가능성 커...자기소개서 중요도도 ↑

현재 고3의 학생부는 교과 연계 활동의 기록이 대체로 기존 졸업생보다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각 대학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2학년까지의 학생부 교과 연계 활동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지므로 자기소개서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교사가 원격 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한다. 이만기 소장은 "오히려 평상시보다 학생부 기재사항을 더 만회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교사 100명 중 5명

교육부 교사 22만명 대상 설문조사 EBS 등 ‘콘텐츠 활용형’ 수업 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한 달간의 원격수업 동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교사는 5%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원격수업을 활용하겠다’는 교사는 44%로, 교사 4명 중 1명은 ‘앞으로 원격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교사 22만489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원격수업을 펼친



전국 중·고교가 지난달 9일 중3·고3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 가운데 개학 첫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송문중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메트로신문 DB

교사는 5.2%에 불과했다. 이어 EBS 강의 수강 등 ‘콘텐츠 활용형’ 수업을 한 교사는 40.9%, 독후감 등 ‘과제 제공형’으로 수업한 교사는 10.6%였다.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교사가

43.3%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제형과 콘텐츠 활용형을 혼합한 형태가 82.1%로 압도적이었다.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을 활용했다는 비율은 17.9%에 그쳤다.

수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는 자체 제작이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등 민간 제공 자료 25% ▲EBS 강의 24% ▲디지털교과서 10% ▲KERIS 제공 자료 8%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교사가 원격교육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향후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교사는 44%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유보적·부정적으로 답변한 교사가 56%로 더 많았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2022년 정시비중 40%까지 확대

정시 확대 대입 공론화 취지 반영

건국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모집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 2022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정원 3396명 중 학생부종합(학종) 등 수시로 2037명(60%)을 뽑고,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 1359명(40%)을 선발한다.

10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는 ‘정시 확대’라는 대입 공론화 취지에 따라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 일반학생 전형 비중을 2020학년도 31.1%, 2021학년도 34.4%에 이어 2022학년도 40%까지 높였다. 대신 수시모집 학종과는

술, 정시모집 실기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KU지역균형) 340명, 학종에서는 KU자기추천(790명)·사회통합(39명)·기초생활맞차상위(63명)·농어촌학생(80명)·특성화고교졸업자(22명)·특성화고졸재직자(136명)·특수교육대상자(20명) 등 1514명, 논술(KU논술우수자) 435명, 실기(KU연기우수자) 15명, 실적(KU체육특기자) 13명 등이다. 정시는 수능(KU일반학생) 1359명이다.

건국대 2022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용수기자 hys@

서울여대, 문체부 주관 3개 공모 사업 선정

교육프로그램·인력지원 등 혜택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3개 공모사업인 ▲2020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2020년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학예 전문인력 지원사업 ▲2020년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 등을 결합해 인

문학의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학예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박물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에는 학예인력 1명이 배정되어, 지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2020년 사립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여자대학교

및 사립대학 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은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관련학과 졸업생 및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이자 만 34세 이하인 지원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용수 기자

순천향대,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선정

연 2억씩 5년간 10억 지원

순천향대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연간 2억원씩 5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혁신 창작 공간이다.

10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사업선정에 따라 순천향대는 대학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개방과 공유의 니눔창작소

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연계를 통한 ‘메이커’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메이커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지역민, 예비창업자들에게는 24시간 메이커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전문메이커 양성을 위해 메이커(Maker)와 전문가(Expert)가 함께(Enjoy Together)하는 ‘MEE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